【 2017.6.30(금) 강원일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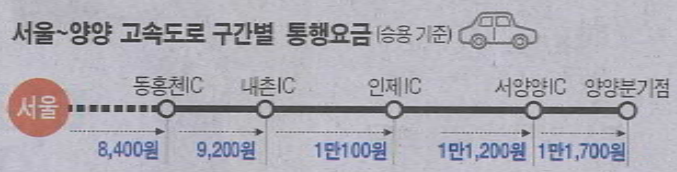
서울~양양 오늘부터 90분 생활권

〈오후 8시〉

동서고속도로 개통식

42년만의 동서 관통 고속도 거리 25.2㎞·시간 40분 단축 연간 2,035억원 경제적 효과

서울~양양 고속도로 구간별 통행요금 (승용 기준)



반세기 만에 서울에서 동해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도로가 새롭게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 고속도로 내린천 휴게소에서 '새길·새희망·새미래'를 주제로 동홍천~양양간 개통식 행사를 갖는다. 일반 개통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이뤄진다. 이날 개통식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문순 지사,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다.

서울~양양고속도로 150.2㎞의 마지막 구간인 동홍천~양양간 71.7㎞가 이날 개통, 서울과 양양 간 거리가 25.2㎞로 줄고, 주행시간이 40분가량 단축된다. 이로 인해 연간 2,035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관련기사 2면

동서 8축도로인 서울~양양 고속도는 2004년 착공, 2009년 민자로 서울~춘천이 선 개통한 데 이어 이번에 재정공사로 잔여구간이 뚫렸다. 신설 공사에는 약 2조3,783억원이 투입됐다.

동홍천~양양 구간은 백두대간의 험준한 산악지형을 통과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전체 71.7㎞ 중 터널과 교량이 73%를 차지한다. 국내에서 가장 긴 도로 터널로 11㎞의 인제양양터널의 경우 24시간 안전요원이 CCTV를 감시하고, 119전담소방대가 상주한다. 내린천휴게소는 국내 최초의 도로 위 휴게소로 하늘에서 보면 V자 모양을 형상화하는 등 그 자체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도내의 경우 동서고속도로는 1975년 영동고속도로에 이어 42년 만에 동서를 관통하는 고속 교통 인프라다.

최문순 지사는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동해고속도로와 연결돼 강원북부와 동해안권의 경제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류재일기자 cool@kwnews.co.kr

내달 원주~강릉 복선철도 구간 KTX 시운전

원주~강릉 복선철도 공사에 시속 250㎞ KTX 열차 시운전이 임박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본부장:노병국)는 연말 개통 예정인 원주~강릉 복선철도 구간의 종합시험운행 열차 안전 확보를 위해 분야별 철도 시설물 사전점검을 시행한 결과 KTX를 투입해 시운전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원본부는 철도유관기관 전문 인력과 함께 사전점검팀을 구성해 노반, 궤도, 전차선, 신호 등 모두 12개 분야 277개 항목에 대해 지난 1일부터 한 달여 동안 시운전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지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시운전에 지장을 주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강원본부는 7월 말부터 KTX 열차를 시속 250㎞로 운행하면서 시설물 검증시험을 10월까지 벌인다. 원주=유학렬기자

원주국토청 혁신도시 이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전만경) 등 5개 국가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한다. 원주청은 30일부터 사흘간 단계동 원주합동청사를 떠나 혁신도시 내에 신축된 나라키움 원주청사로 사무실을 옮기는 이사작업을 벌이고 다음 달 3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원주=유학렬기자

문화관광체육국장에 변정권

도 실국과장·부단체장 인사 단행

도는 29일 경제 분야 총괄주무국인 경제진흥국장에 양민석 경제진흥과장을 승진 임용하는 등 실·국·과장,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를 7월1일자로 단행했다. ▶프로필·명단 8·23면

안전 분야를 총괄할 재난안전실장에 안권용 투자유치과장, 문화관광체육국장에 변정권 올림픽운영국 총괄관리과장, 인재개발원장에 정일화 미래농업교육원장, 환동해본부장에 변성균 정보산업과장, 의사과에 엄명삼 세정과장, 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에 이계석 회계과장, 강원테크노파크 정책협력관에 김세훈 관광개발과장을 승진 임용했다.

강원FC 고정배 단장은 국장급으로 승진했다.

김학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김상표 시설사무차장 후임자로 내정했다.

강원연구원으로 발령이 난 한원석 보건복지여성국장은 9월1일자로 도체육회 사무처장에 임명된다. 그동안 시·군과의 협업 및 상생 발전을 위해 일관되게 추진해 온 부단체장 1대1 교류는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 임명했다.

춘천부시장에 박종훈 재난안전실장, 동해부시장 김종문 환동해본부 해양항만과장, 홍천부군수 허성재 농산물원종장장, 횡성부군수 이병한 도의회 경제건설전문위원, 철원부군수 이종훈 인재개발원 교육연구실장, 인제부군수 박대용 중국통상과장, 양양부군수에 신이선 경로장애인과장을 전출 발령했다.

이번 인사는 제2기 최문순 도정 임기를 불과 1년 남기고 있는 시점인 만큼 기존 연공서열 위주의 승진에서 탈피, 업무 성과와 능력 중심의 배치에 중점을 뒀다.

특히 신상필벌 원칙을 엄격히 적용, 조직 안정과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도가 인사원칙에서 강조하고 있는 전문직 중용은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8명에 달하는 국장급 직위승진자 모두 행정직으로 채워져 기존에 강조했던 소수직렬 중용 방침을 무색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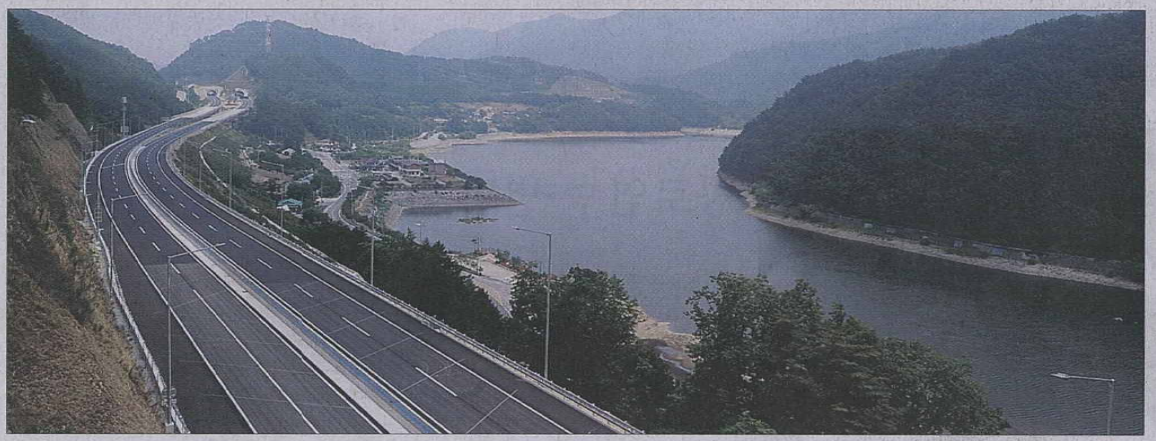
이성현기자 sunny@

【 2017.6.30(금) 강원도민일보 】

서울~양양 '90분 주파 시대' 열렸다

오늘 동서고속도 전구간 개통

5시간→1시간30분 소요
물류비 연간 1874억 절감
도내 관광객 증가 기대
도 인구유출 등 우려도



서울과 양양을 잇는 동서고속도로의 전 구간이 30일 개통된다. 전 구간 개통으로 서울에서 양양까지 단 90분만에 주파, 동해안의 관광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양양군 서면 영덕호 인근의 동서고속도로가 시원하게 뚫려있다. 안병용

서울과 양양을 잇는 동서고속도로(150.17㎞)가 30일 기대와 우려 속에 전 구간이 개통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인제 내린천휴게소에서 동홍천~양양구간(71.7㎞) 개통식을 갖고 오후 8시부터 차량통행을 시작한다. 동서고속도로 전구간 통행요금(편도)은 기존 민자구간인 서울춘천고속도로 6800원과 춘천JCT~양양구간 4900원을 합쳐 1만1700원으로 확정됐다. 서울과 강릉을 잇는 영동고속도로와 비교하면 2100원 비싸다.

이날 동홍천~양양 구간이 개통되면서 현재 운영중인 서울춘천고속도로(61.4㎞)와 춘천JCT~동홍천(17.1㎞)구간까지 이어져 명실상부한 동해안 시대가 열리게 됐다. 2009년 서울춘천고속도로 개통 전 길게는 5시간 이상 소요되던 서울~양양 자동차 주파 시간은 이번 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8년만에 1시간 30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기대를 모은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통행시간이 단축되면서 물류비용이 연간 1874억원 절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유류비용은 연간 616억원, 통행시간 단축으로 인한 시간편익은 연간 1258억원 절감될 전망이다.

여기에 연간 1억1500만명 수준이던 도내 관광객도 1억55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관광객 유입보다 오히려 도내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속칭 '빨대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관광객 체류시간도 줄어 숙박업계의 타격도 우려된다. 여기에 주말이면 편도 2차선의 상하행선에서 교통체증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돼 개통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신관호

▶관련기사 3면

부동산 '3대 리스크' 현실화… 하반기 집값 0.2% 하락

올 건설수주 10% '↓'… 4년만에 꺾인다

〈148조원〉

건산연, 건설 경기 전망

하반기 72.7兆 수주, 24% 급락

2019년부터 '불황국면' 진입

'공급증가·금리상승·규제' 발목

분양물량 작년보다 36% 감소

하반기에는 부동산 시장의 3대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보다 24.1% 급감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해보다 10.2% 줄어든 148조원에 그칠 전망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17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전망했다.

▶관련기사 3면

민간 주택시장이 본격적인 하락세로 돌아서며 건설수주 감소세를 주도할 것으로 예측됐다.

건산연은 하반기 국내 건설수주 전망치를 72조7000억원 규모로 내다봤다.

공공 수주는 정부의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감축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7.5% 감소한 23조7000억원으로 점쳤다. 민간 수주는 2014년 이후 3년간 지속된 주택 및 비주거 건축수주가 감소세로 전환돼 전년 대비 26.9% 줄어든 49조1000억원으로 전망했다.

토목(18조8000억원)과 건축(53조9000억원) 수주 역시 각각 -14.2%와 -27.1%로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했다. 특히 주거 건축 수주가 44조9000억원에서 31조1000억원으로 30.8% 감소를 예측했다.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은 "올해 건설수주액은 148조원으로 규모만 놓고 보면 역대 세 번째지만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며 "하반기에 후퇴국면으로 진입하고 1년 뒤인 2019년에는 불황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반기 건설투자는 2.6% 상승한 130조3600억원으로 추산했다. 상반기 8.9%와 비교하면 뚜렷한 상승세 둔화다.

이에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도 55.6%에서 32.8%로 대폭 낮아졌다. 주택 및 비주거 건축 투자액이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증가율이 큰 폭으로 둔화됐고 토목투자도 지속적인 부진을 예상했다.

하반기 주택시장은 공급증가와 금리상승, 정책규제 등 이른바 '3대 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국 매매가격이 0.2%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금리인상, 금융규제 강화 여파로 관망세가 확대되고 지방은 입주물량이 많아 소폭(-0.2%) 내릴 것으로 봤다.

올해 분양물량은 30만가구로 전년보다 36%(약 17만가구)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집단대출 규제와 6·19가계부채종합대책 등의 영향 탓이다. 올해 인허가도 55만가구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18만가구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정부의 규제정책 기조와 입주물량 급증으로 하반기부터는 리스크가 현실화될 것"이라며 "금융건전성과 주거안정의 균형을 고려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금융건전성 관리지표에 대한 장기적인 운영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태형기자 kth@

토·일요일자 신문 쉽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 13년만에 완전 개통

서울~동해안 '90분시대' 올 여름휴가길 뻥 뚫린다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첫 삽을 뜬 지 13년 만에 완전 개통된다.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마지막 구간인 동홍천~양양 구간이 개통되면서 올해 동해안 여름휴가는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를 타고 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총연장 71.7㎞의 동홍천~양양 고속도로가 30일 오후 8시에 개통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양양 고속도로는 서울~춘천, 춘천~동홍천, 동홍천~양양 구간으로 나눠 추진됐다.

동서 관광벨트 조성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지난 2004년 서울~춘천과 춘천~동홍천 구간이 착공에 들어가 2009년 개통됐고 동홍천~양양 구간은 2008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이번에 개통하게 됐다.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전 구간이 13년 만에 완전 개통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양양 간 이동거리가 175.4㎞에서 150.2㎞로 25.2㎞ 단축되고 주행시간도 2시간 10분에서 1시간30분으로 40분 줄어 연간 2035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양양 고속도로는 지역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가평과 강원 춘천~홍천~인제~양양을 잇는 동서 관광벨트가 조성돼 인제 내린천·방태산·자작나무숲, 양양 오색약수·하조대·낙산사 등 강원북부 지역과 설악산국립공원 등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연장 11㎞로 국내 최장 도로터널인 인제터널은 피난연락통로, 광섬유 화재감지기, 과열차량 알림시스템, 독성가스 감지시스템 등 첨단 방재시설을 갖추고 수직갱 2곳, 사갱 1곳 등 환기시스템을 설치해 높은 안전성을 확보했다.

국내 최초의 도로 위 휴게소인 내린천 휴게소는 V자 모양의 독특한 형상으로 만들어져 주위 자연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편 개통식 행사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지역 국회의원, 강원도지사,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제 내린천휴게소에서 열린다.

박경남기자 knp@